

위선자의 대국민 사기극 개요

2015/10월

- 아들박주신이 병역면탈만 했다면 한낱 범죄일 뿐이지만, 제기의혹을 덮으려 2012/2/22일 서울시와 세브란스가 기습 MRI 바뀔치기를 연출했다면 **희대의 사기극!**
- 의혹제기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진행중에 피고소인권리로 여러 명백한증거들이 드러나고있으나
- 세브란스, 병무청, 심평원 감독기관, 검찰들이 이미 드러난 정황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사조차 거부하며
- 언론.방송마저 위선의 권력을 두려워하여 웅크리고
- 지지세력과 세작들이 나서서 방호벽을 치는탓으로
- 국민들이 '설마?'하는 동안, **위선이 진실을 누른다**
- **부패가 곰팡이라면, 위선은 치명적세균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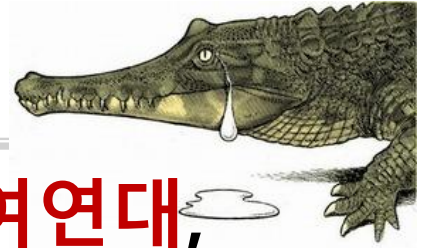
위선자의 행적, 그 비린내

2015/10월

- 남의 돈으로 생색을 내고 이름을 팔아 권력을 산다
- 1956년생 창녕, 경기고, 서울대중퇴, 단국대졸, 1980년 사시합격
- 經歷: 민변, 참여연대, 추잡한가게, 더러운재단, 절망제작소, 역사문제연구소, 민족문제연구소 등을 주도
- 理念: 김정일옹호, 호치민찬양, 6/15및 10/4지지, 천안함폭침 의문제기, 국보법폐지 주장, '현대史는 암흑의시대', '惡法은 지킬 필요가 없다', '김일성만세와 공산주의도 용인해야', 縱北容認者!
- 疑惑: 병역면탈(실종 숙조부의 양손입적), 기업협찬, 더러운재단 기부금 용처, 아들 병역면탈, 딸 로스쿨 전과, 애비 친일행적
- 犯法: 법위반 낙천.낙선운동, 광우병선동
- 僞善: 학력 부풀리기, 닳지않고 터진 구두, 서민 코스프레, 대기업 사외이사, 하바드 도서관책, 재산 -7억원



위선의 권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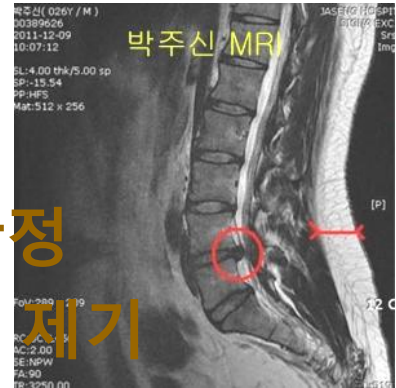


- (이석기변호) **민변**에서부터 (광우병선동) **참여연대**, **추잡한가게**, (기업협박) **더러운재단**, **절망제작소**, (교과서왜곡) **역사문제연구소** 등에서 술한 기생충들을 육성하고, 그들을 시켜 기득권층의 비리를 파고들어 그들을 충분히 협박할만큼 많은 정보를 많이 주고있다
- 그기다 시장이 되고나서 서울시에 딸린 돈을 뿌려; (놀고먹는초빙교수) 시립대학, 시립병원, 시립미술관, 시향, **세종문화회관(수정)**, SH공사, 메트로, 도시철도, (학맥노출) 농수산물식품공사, (낙하산+재돌이) 대공원, (오성규) 시설공단, (박래군) 시_인권위, (유창복) 마을공동체, 개인용 시장홍보조직 270여명, 변호사 33명 등 그 거대한 조직들을 다 사유화하다 싶어하고 있다.

사기극 경과

2015/10월

- 2011/08/29 박주신 공군입대, 9/1일 대퇴부통증으로 귀가
 - ❖ 실제로는 충치 4개 이상만 되어도 공군 입소불가 판정인데, 이후 아말감14개 등 주장
- 2011/10/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박원순 당선
- 2011/12/12 재입영통지, 병역처분변경신청 후접수
- 2011/12/27 서울병무청이 종종 **요추디스크**로 4급판정
- 병역처분 MRI입수한 강용석의원 등이 **병역면탈의혹 제기**
- 2012/02/22 세브란스 MRI 재검, '**병무청사진과 동일인**'
- 양승오박사 "MRI사진으로는 20대 청년의 척추가 아니다"
- 2014/6월 시장선거앞 **공직선거법위반**으로 의혹제기자 고소
- 선거후 고소인의 선처불사, 피고소인들 정식재판 요청
- **피고소인 권리로 여러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으나,**
- **비리당사자와 공공기관과 세작들이 방호벽을 치며,**
- **소환장(11/20출두)을 거부. 법원이 형사사법공조 요청**



사기극 제1막 연루자들

2015/10월

□ 제1막: 2011/12월

- 박주신: 1985년생. 당시 서초동/만26세, 173Cm/63Kg? 압구정 현대고졸, 4수뒤 고려대건축과(5년제) 2011/2월졸, 사랑의교회, 롯데상무딸 맹혜영과 2013.5.24일 결혼. 2014.3.28일 공익근무 마침. 10.11일 출국, 現 영국도피중
- 강난희: 아들 병역면탈을 위해 병무브로커 접촉 혐의
- 병무브로커?: 병무청부근에 아직 서성거리고 있을터...
- MRI사진 제공자?: 대리신검자. 사진만 제공? 출연료도?
- 자생한방병원: 신사동. 병무 비지정병원. MRI 촬영
- 김봉룡(50): 헤민병원(자양동)의사. 진단서발급. 10여년전 군의관복무 때 병역비리 연루해 징역1년 선고유예 전력
- 서울지방병무청 전담의 이모씨: 비리연루의사 발급진단서 참조, 자체 MRI대신 CT로 판정, 심사위원회 누락 등등

□ 강용석의원과 한석주의사가 의혹 제기

- 박 병역처분관련 MRI사진 입수, 과다비만의심

❖ 강용석: 하바드유학전 참여연대에서 일했고, 장인이 박원순 열렬 지지자며 장모가 추잡한가게 공동창업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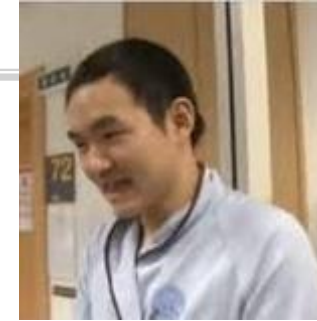


사기극 제2막 연루자들

□ 제2막: 2012-2-22일 이후

- 박원순: 현 서울시장. 사기극 제작 혐의
- 박주신: 2014년 결혼후 현 영국 도피. 부모/친지가 허리병신에다 아말감16군데 치료했다고 극구 주장
- MRI사진 제공자: 일명'박카스' 이번엔 거액출연료?
- 일산명지병원 부원장 김형수: 여행연습용 MRI 촬영
- 손명세: 경기도. 당시 보건대학원장. 사기극연출혐의. 현 심평원장. 치과기록 조작 혐의
- 이철: 세브란스 병원장(2010년~14/7월). 경기도
- 윤도흠: 재검당시 신경외과교수. 현 세브란스 병원장
- 세브란스 이환모, 김명준, 이승구 의사들
- 방사선사 지창룡: 6개월동안 대포폰과 통화 1000회이상
- 문준식: 치과의. 경기도, 참여연대. 2014년 검찰에 박주신 치아 치료했다고 진술, 허위자료 제출
- 업상익: 변호사. 경기도. 순진한 사기극 들러리
- 위선자의 비선: 서울시 권오중, 김재춘, 천준호 등

□ 양승오박사와 김우현치과의 등이 의혹제기



서울시 공개, 박주신
세.홍보팀장과 2:00
의사용 좁은출입구로
출현했다고 10/27
업상익변호사 증언



채널A 촬영 사내
시청직원과 1:50
큰출입구로 출현
세.홍보팀장이
박주신으로 지목



의혹 제기자들

2015/10월

□ 양승오 박사 (피의자)

-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사
- 1956년 부산출생, 경남고졸
- 1981~1989년 서울대병원 수련의-전공의-전임의...
- 2010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과장
- 2010년~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영상의학과 과장
- 2011년2월~ 2012년 아시아근골격계학회 회장
- 2011년~ 現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영상의학 겸임교수



□ 차기환 변호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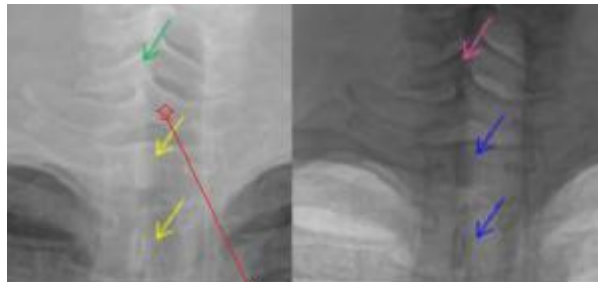
- 사법시험 27회, 사법연수원 17기
- 우정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
- 1963년 출생
- 1981년 서울 여의도고등학교
- 198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
-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에서 연수
- 제27회 사법시험 합격(연수원 17기),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, 수원지법 판사, 자유주의연대 집행위원 등을 역임, 현재 변호사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, 미래한국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



드러난 증거들, 7대 불가사의

2015/10월

- ① 3개의 X-ray (공군-자생병원-비자발급용)를 비교·판독한 결과 나타나는 '석회화 현상'과 '극상돌기' 차이점.
- ② 양승오 박사가 강조하는 골수패턴(골수신호강도) 분석 결과



Spinous Process

제1흉추 극상돌기
오른쪽으로 휜



11/8/29 공군퇴소시 촬영



Spinous Process

제1흉추 극상돌기
정방향



11/12/9 자생한방 촬영



Spinous Process

제1흉추 극상돌기
오른쪽으로 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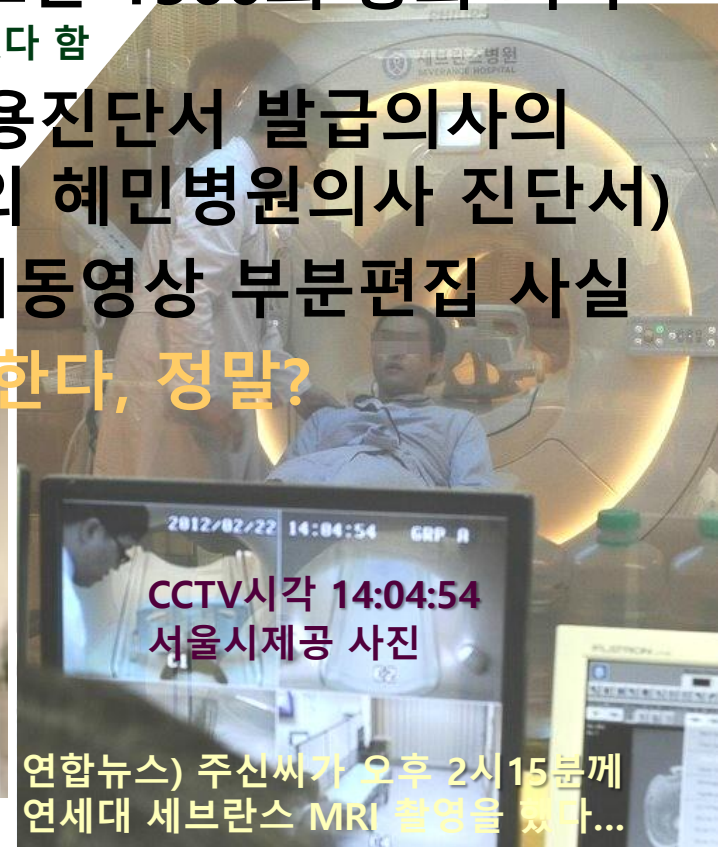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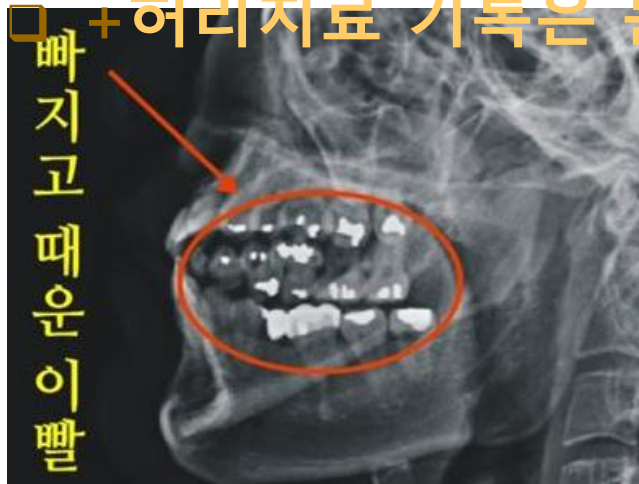


14/7/31 비자용 세브란스

드러난 증거들, 7대 불가사의 (계속)

2015/10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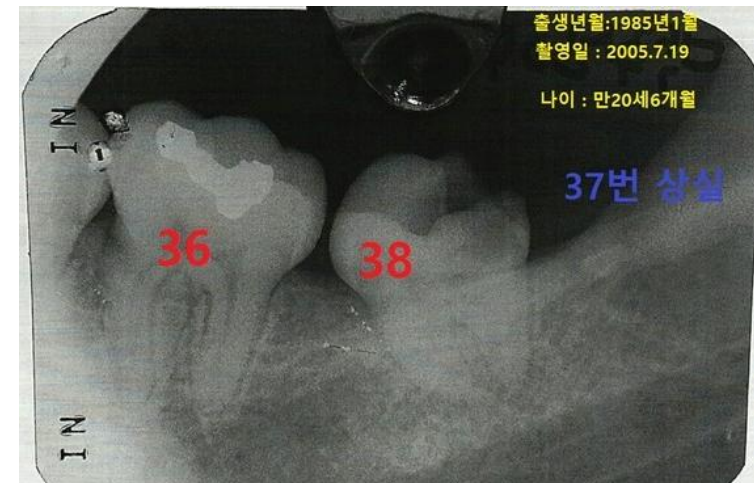
- ③ 박주신씨의 치아가 보이는 X-ray 분석결과 (불량 치아상태)
 - ④ 치아 치료했다 주장하는, 치과의 문준식이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요양급여 청구내역에 기재된 '유령건강보험증 번호'
 - ⑤ 세브란스병원 방사선사의 6개월간 3-대포폰 1500회 통화 의혹
+세브란스 MRI 방사선사 근무일지가 공교롭게도 2012/2월만 증발했다 함
 - ⑥ 병무청 병역처분 변경절차 위반 및 병사용진단서 발급의사의 과거 병역비리 연루 사실 (병역비리전력의 헤민병원의사 진단서)
 - ⑦ 2012/2월 세브란스신검 현장촬영 서울시동영상 부분편집 사실
- +허리치료 기록은 눈뚫고 찾아봐도 없다한다, 정말?



드러난 증거들, 잇빨 7대 불가사의

2015/10월

- 스무살 2005년에 37번쪽으로 기운 뿌리까지 썩은 38번 사랑니
- 20대 중반에, 14개의 값싼 아말감(산뽀라) 치료가 과연 일반적?
- 30년 시술 단1회했던 이웃잇빨 하나에만 거는 '캔틸레버브릿지'
- 유명 치대교수 "주신씨 인물사진과 치아사진, 동일인 아니다"
- 빠진 37번치아를 신경치료했다 기록하고 '치아위치 혼동'로 진술
- 신경치료만 한채 8년방치한 37번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시술
- 임플란트시술 37번치아, 파노라마대신 차근단 X레이만 촬영



병무청 비리사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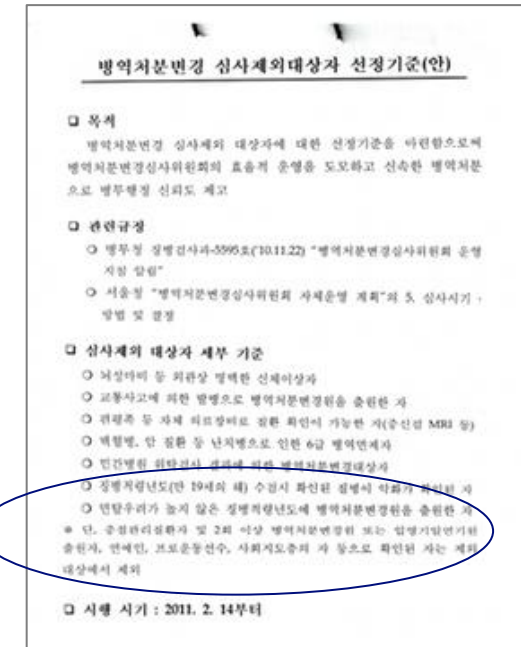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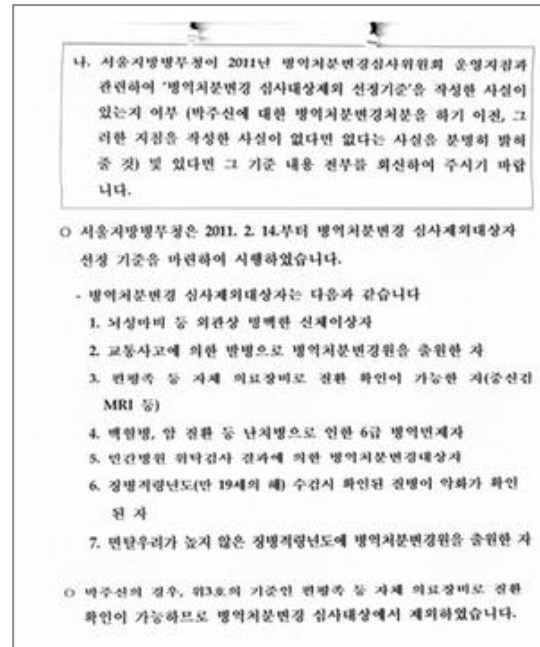
2015/10월

- 1) 병역비리의사 발급 진단서 참조
- 2) 자체 MRI촬영 대신에 CT촬영으로 대신
- 3)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심사위원회 누락
- 4) 마감시한 넘긴 병역처분 변경신청에 대한 변경
- 5)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관련 CCTV자료 제출거부

※ 단, 중점관리질환자 및 2회 이상 병역처분변경원 또는 입영기일연기원 출원자, 연예인, 프로운동선수, 사회지도층의 자 등으로 확인된 자는 제외 대상에서 제외

□ 병무청장이 적법했다고 올해 국감에서 답변

차변이 밝히는 두개의 병무청 회신자료:
처음엔 왼쪽 문서대로 심사제외대상의
단서조항을 고의로 누락한채 회신,
차변 추궁에 다시보내온 두번째 문서의
심사제외 단서조항 ('사회지도층 주는 심사
제외대상에서 제외').
이 규정마저 최근에 삭제된듯?



사기극을 설마하는 이유

2015/10월

- 첫째, 위선자 추종세력의 저항
 - 민변, 참여연대, 역사문제연구소, 더러운재단, 절망제작소
 - 위선자의 은덕을 누리는 서울시 직원과 산하기관
- 둘째, 사기극 연루 공공기관의 은닉
 - 연세의료원, 서울시감독기관, 병무청, 심평원감독기관, 검찰
- 셋째, 조갑제 패거리 등 세작들의 방호막
 - 국가기관이 여러 차례 검증했고, 의학적으로도 부당하니
 - 너무 발을 깊이 담그면(의혹을 심하게 몰고가면)
엎어치기 한판으로 위선자에게 대권을 내줄수있다 라고
- 넷째, 언론.방송의 침묵
 - 민변/참여연대/역문연 등에서 수집한 비리정보 때문?
- 다섯째, 사건 연루자들이 많고 사건이 복잡
 - **설마** 그많은 사람들이?? 설마 공공기관이??



- “아들을 재검 받게 할 의사가 없느냐”는 질문에 “과거에 그렇게 난리를 쳐서 국내에서 최고로 신뢰받는 병원에서 전문가와 출입기자들까지 가서 확인한 걸 몇 사람이 의심한다고 또 가야 하나?”
- “병무청, 검찰 등 공공기관들이 6차례나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낸 사건인데 자꾸 의심을 제기하는 건 정치적 공격을 하는 분들이라 확신한다”
- 소환장에 대해 서울시가 “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,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(주신씨가)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” **출두 절대기피**
- **출두는 안하고 재판을 최대한 끌며 잔꾀를 모색할 동안,**
- **국가기관이 비리를 덮기위해 위선자에게 면죄부를 준다.**



세작들의 물타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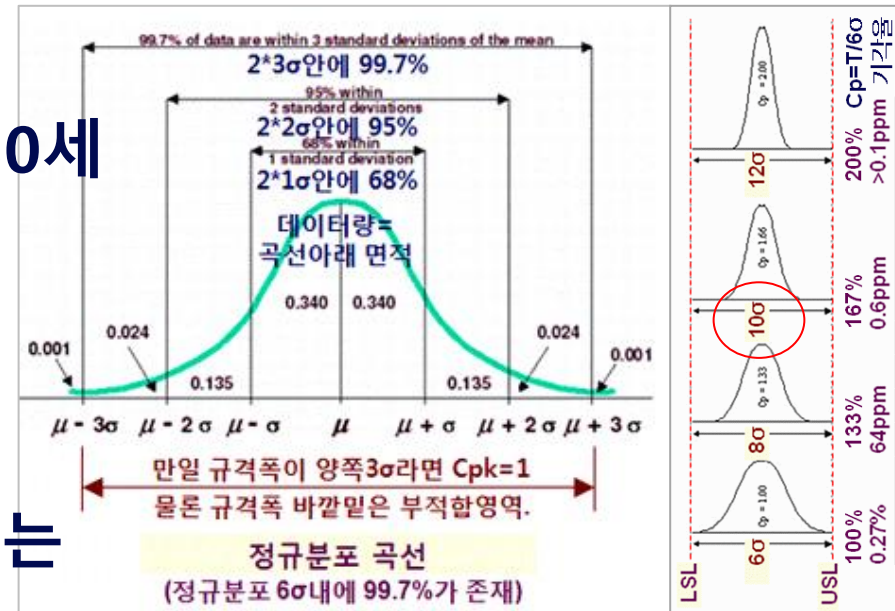
2015/10월

- 1) 양승오는 MRI사진이 27세일 확률 '0.0000001%'라고 주장했지만, 표준편차개념을 잘못이해한거, 확률 30%임
❖ 산포도 Data를 분포확률로 왜곡호도, 정작 유사건본 제출못함
 - 2) 세브란스 참관기자가 "당시상황 알면 의혹제기 못할것".
공개검증시 발디딜틈 없이 기자들로 꽂혔었다네요
❖ 서울시직원 통제속 출입기자 4명 제한입회, 발표시인원을 호도
 - 3) 대한의사협회산하 대한영상의학회는 양승오박사주장과 달리 X레이 사진이 박주신씨의 것이 맞다라는 결론
❖ 이해단체가 극상돌기/석회화를 찍는각도에 따라 다르다고 호도
❖ 재판부가 판독위 재구성지시. 집단지성에 의한 평가진행중
그런데도 의협이 박주신 영상 판독불가 취지의 (감정인명단도 없는) 감정서를 보내옴
- 맛이 간 조갑제: '양승오對대한민국의 싸움'
'양승오는 김대업보다 더한 사기꾼'이라고.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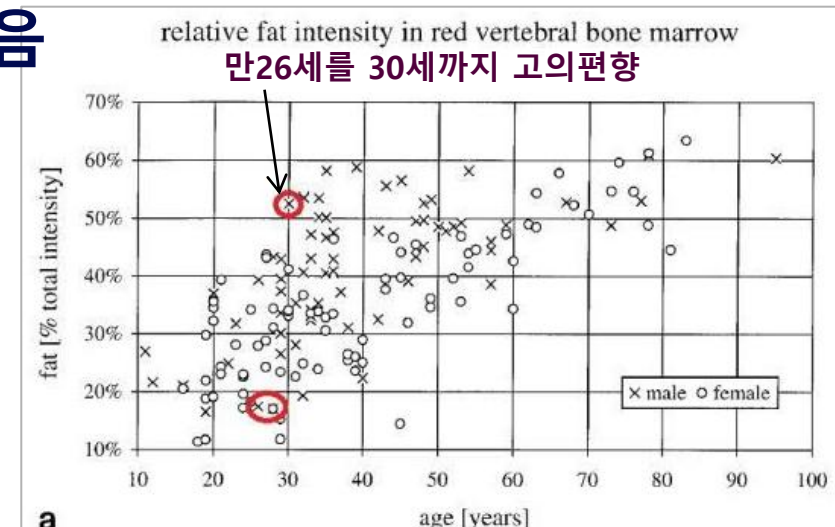
□ 골수 신호강도: 정규분포 이해

- “척추의 황색골수의 비율은 21~30세 남성나이에서 $33.5 \pm 10.4\%$ ” $\Rightarrow$
- 낮게 잡아 45%(세작들주장)인데 $+3\sigma$ 위치 곧 골수비율 43.9%@의 존재확률 = $0.001 = 0.1\%$.
- 골수비율 추정 50%(= $+4.8\sigma$)에서는 존재확률 = 약 1ppm = 약 1/1백만
- 확률 20~30%라면서 견본을 못 내놓음



□ 쿠겔 산포도 이해

- 나이와 골수지방비율의 추세 확인
- 확률추출용으론 집단수가 너무작다
- 논문도 오래되어 현대 MRI기기 데이터와는 약간 차이를 보임



사건 진행 상황, 12/22일 현재

2015/10월

- 박원순이 허위사실 유포 및 그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 재판 진행중⇒ 무혐의예상
 - 소환장발송 (서울시장공관, 妻 영국학교), 애비가 출석거부
 - 재판부가 법무부에 형사소환공조 요청
- '박주신병역법위반 고발시민모임' 千여명 박주신(30)을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
 - 검찰 사건배당, 위 재판 결과에 따라 수사착수 의지
- 시민단체 병무청감사 요구, 감사원기각⇒ 고소예정
- 치과의사 문준식 고소, 세브란스 방사선사 고소 예정
- 12/18 감정위원회 개최, 3+3 감정위원 14개 항목에 대한 의견
- 12/22 제14차 공판. 종합 의견서 재제출, 28일 개봉?
- 01/20 결심공판, 2월초 판결 예상 (법원인사 변동전에 필히!)

- 악인은 스스로 흥계를 드러내는 법, 제 발등을 찍다!
- 양심을판 서울시와 신앙을저바린 세브란스도 있다!
- 동조.방임한 공공기관이 비리가 드러나도 자체조사조차
마다하고 늘 그러듯 조직을 위해 공익을 저바린다!
- 서울시장/심평원장/병무청장 등이 위증을 해도 감독할
총리/보건복지부/국방부/감사원 등이 뭘 하나?
- 검찰이란게 정의보다 조직생존을 우선하는 무력집단!
 - 마치 옆집사내가 아동성범죄자라 소문내다 고소당해 재판중에
정말 그런것 같아도 그냥 고소인 대리역할만 하고있는 머저리
- 위선의 권력앞에 웅크린 언론.방송이 차후에 뭐라 변명?
- 우리사회가 정의보다 (더러운) 힘에 의해 지배되는가?

사건을 밝혀낸 뒤의 대책

2015/10월

□ 형사처리 (처분, Disposition)

- 위선자, 당사자-아들, 주선자-처, 병무중개인, 박카스
- 자생한방병원, 혜민병원의사, 서울시병무관
- 동원된 서울시 직원, 세브란스 해당직원 및 의사(경기고인맥)
- 모해위증한 문준식 치과의, 증거조작한 심평원직원/원장



□ 정치처리 (시정조치, Corrective Action)

- 대국민 사기극을 주도한 서울시장, 극악한 위선의 세력
- 명백한 비리를 자체조사 않고 적법처리했던 병무청장
- 피고소인 소환없이 무혐의처분, 수사착수도 않는 검찰조직
- 뗏뗏하다는 연세의료원장, 심평원장을 방치하는 보건복지부

□ 단죄 내지 속죄

- 침묵하던 언론.방송들, 세작들(조갑제 등), 의사협회
- 제2의 타진요라며 호도하던 세력들, 위선의 사회단체들

맷음뒤1 (12/27일) 위선자의 분탕질

2015/10월

□12/22 제14차 공판. 종합의견서 재제출, 28일 개봉?

□01/20 결심공판, 2월초 판결 예상

□벼랑끝에 몰린 위선자의 시선뺏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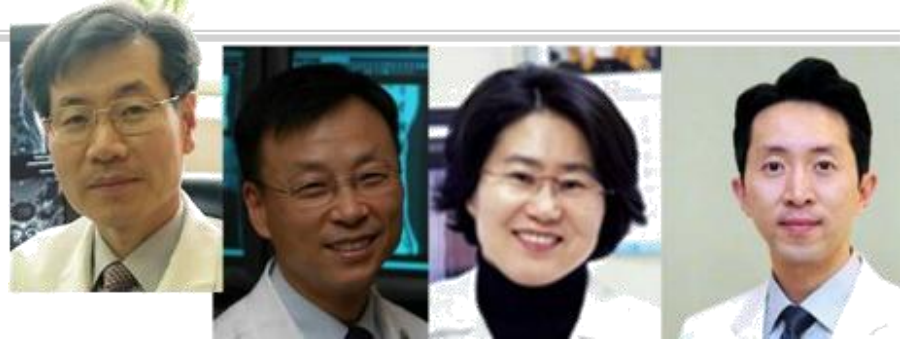
- 광화문 국기게양대 시비, 저네 땅이라나..
- 청년수당 강행, '누리에산 정부가 하라'
- 서울역 고가로 공원화 강행, 정부와 충돌
- 잠실돔구장건설 임의발표 (고척돔 실패후)
- 강남구청 댓글비난 (시청 댓글부대 운영하면서)
- 세월호천막, '소녀상 자리는 불가역', 김미O/공지O 채용
- 서울시교육청, 박정희 포함된 '친일인명사전' 배포키로
- 박원순, '아들 병역의혹 제기' 강용석에 1억원 손배청구
- 'I·Seoul·U'...서울시 브랜드 비난 불구 강행, 금칙어 추태
- SNS 악성루머 자가발전, 박원순의 탈모자랑...



맷음뒤2 (16/1/5일) 의사들의 감정결과

2015/10월

- 오연상: 다른 사람임
- 김현우: 동일 인물이 아님
- 이수섭: 동일 인물이 아님



- 류경남: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됨
- 박정미: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됨
- 김태정: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소견이라고 판단됨
- 논리: '다른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' ⇒
'같은사람'이라 알겠지만, '다른사람'이란 증거없다

□ 검찰측 감정위원

- 류경남 경희대 영상의학과 교수: 강흥식이 골영회 초대회장할 때 학술이사
- 박정미 카톨릭 영상의학과 교수: 골영회 제10회 회장.
- 김태정 삼성서울병원 교수: 강흥식 밑에서 펠로우, 조교수, 부교수를 했다
- ❖ 이들의 논거: 촬영자세나 촬영조건에 따라 영상차이가 있다

맷음뒤3 (16/1/28일) 피의자 최후진술

2015/10월

http://allinkorea.net/sub_read.html?uid=33364§ion=section39§ion2=

- 양승오 박사: "MRI주인이 박주신일 확률은 0%에 가깝다"
 - 이 일로 얻고자 하는 유익이나 공명심이 있는가를 곰곰이 성찰한 후 [없다]라는 답을 ...
- 치과의사 김우현씨: 잇빨 의문제기. 일베에 수차례 게재. (기적의 사랑니)
 -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...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함의 한 방법이었을 뿐입니다.
- 서강 '사회지도층병역비리감시단' 대표
 - 음해에 현혹되어 동조하는 사람들을 접했을 때는 비록 잠시나마 깊은 회의마저 들기도 했습니다
- 김상진 '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' 사이버감시단장, 정몽준팬카페운영
 - 군 병역문제에 있어서의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
- 주부 이지혜(54)씨: 병역비리 지속적 제기
 - 무죄를 받기위해 여기까지 온건 아닙니다
- 출판사직원 이j휘(45): 내용증명을 74명 초교교장, 같은 이메일을 498여명에
- 김기백 '민족신문' 대표

- 변호인측 증거 372개 제시, 검찰측 반증 무력
- 검찰측 구형: 법정최하형 500만원 2명, 그아래 300만원 5명
- 선고: 2/3(수) 2시 311호 법정> 선고연기 2/17(수)

맺음뒤4 (16/2/17일) 선고공판

2015/10월

- 주심판사 심규홍(沈揆弘) 1966년생, 사법시험 33회
 - 원적 전북익산?, 서울 보성고교, 중앙대 법학과, 법학석사
- 1500/700/1000만원 선고 > 검찰구형 500/300만원
- 판결요지: 372개의 증거 및 감정의 의견 무시
 - 세브란스 촬영실패, 다른 의혹은 아니란 확실한 증거로 부족
 - 박주신 잇빨 의혹과 유령청구서 등도 그럴수 있다
 - 병무청 절차위반사실도 박주신 촬영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
 - 관전압/촬영자세(영상의학회 의견)때문, 다른사람이라 판단못함
 - 충분한 확인/입증없이 의혹을 퍼뜨린 것은 질이 나쁜 죄다
- The Benefit of Doubt 원칙 무시
 - 피고측에서 제시한 372개의 증거는 전혀 무시하고
 - 허위사실이란 입증 책임이 고소인에게 있는데도...
- 법원인사 直前日에 도망치듯 내던지고 갔다

맺음뒤5 (16/3월) 선고공판 이후

2015/10월

- 심규홍은 왜 법원인사 직전 이런 판결을 내질렀을까?
 - 판결문에 합리성을 강조하며 비합리적 판결 내린 이유?
 - 판결 원칙 파괴, 사법부 내.외부 압력 의심
 - 위선자-서울시-세블-의사-병무청-검찰-언론... 야합 윤곽 뚜렷
 - 덕분에 의혹은 더크지고, 항소함으로써 판을 더 키웠다.
- 1심에 승리한 자들의 승리함성이 왜 없는가?
- 의혹없다는 박주신은 왜 땃땃이 귀국 못하나?
- 위선자의 후조치
 - 1심판결근거로 양승오에게 1억원 등 총 5억원대 민사소송
 - 언론에 대해 해당기사 삭제 요청, 거의 삭제
 - 뉴데일리만 굶히지 않고 기사삭제 안함
- 양승오+김우현 등, 2/19일 서울고법에 항소장 제출
 - 제6형사부 정선재 부장판사 배당. 사건번호 2016노802